

CCRB의 인종 프로파일링 및 편견 기반 치안 수사팀

시민민원심사위원회(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, CCRB)는 뉴욕시 경찰국(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) 구성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조사, 조정 및 기소하는 뉴욕시 기관입니다. CCRB는 독립적이고 공정합니다. CCRB는 NYPD 소속이 아닙니다.

인종 프로파일링 및 편견에 기반한 치안수사란?

인종 프로파일링은 NYPD 경찰관이 용의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, 민족, 출신 국가, 또는 피부색을 기반으로 법 집행 조치를 취할 때(차량 또는 보행자 불심검문, 체포, 소환, 수색, 이동 명령 등) 발생합니다. 편견에 기반한 치안수사는 NYPD 경찰관이 용의자의 종교, 연령, 체류 신분 또는 시민권 상태, 성별/성 정체성, 성적 취향, 장애 또는 주거 상태를 이유로 법 집행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합니다.

인종 프로파일링 및 편견 기반 치안 수사팀이란?

지방법규 47(Local Law 47)(2021)은 CCRB의 "직권 남용" 사법권에 인종 프로파일링 및 편견에 기반한 치안수사를 추가했습니다. 즉, CCRB는 이제 NYPD 구성원의 차별적 행동을 주장하는 민간인의 민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(이전에는 이러한 모든 민원이 NYPD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되었음). CCRB는 이러한 민원 조사에 주력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팀인 인종 프로파일링 및 편견 치안부(Racial Profiling and Bias Policing Unit, "RPBP" 부서)를 신설했습니다. RPBP 부서는 인종 프로파일링 및 편견에 기반한 치안수사에 관한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협력하는 변호사, 조사관 및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됩니다.

프로파일링/편견 기반 치안수사의 예:

- 정지 신호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을 줄인 뒤 그대로 주행하는 '롤링 스톱(Rolling stop)'을 한 터번을 두른 민간인에게 길 한쪽으로 차를 정차하도록 합니다. 터번을 착용하지 않아 보이는 다른 운전자들도 롤링 스톱을 하지만 NYPD가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.
- 하교 후 NYPD 경찰관은 흑인 중학생들에게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.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백인 학생들은 동네에 남을 수 있습니다.
- 주말 밤, 똑같은 길모퉁이에 두 명의 여성이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한 명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하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신원 확인의 요청을 받습니다. 시스젠더로 보이는 나머지 여성은 불심검문도 없고, 질문을 받거나 신원 확인을 요구받지 않습니다.
- 늦은 밤 지하철 객차에서 NYPD 경찰관이 노숙자로 보이는 자고 있는 남성을 끌어내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한편, 동일한 객차에서 자고 있지만 흥리스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다른 두 명의 남성에게는 객차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허용합니다.
- 두 명의 경찰관이 새벽 2시경 인도를 걷고 있는 세 명의 젊은 라틴계 남성을 정지시키고 무기가 있는지 물으며 이들의 몸을 수색합니다. 자신들이 불심검문을 당한 이유를 묻자 경찰관은 최근 일대에서 20대 라틴계 남성이 저지른 총격 사건이 수 차례 발생했으며 세 명의 청년이 밤늦게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.

민원 제기

민원 제기 방법: 전화 1-800-341-2272 (CCRB) 또는 311, 온라인 www.nyc.gov/ccrbcomplaint 또는 100 Church Street, 10th Fl. New York 10007 사무소 방문. 민원 제기 방식에 관계없이 진술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드릴 수 있도록 현재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 주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상세 정보 확인

- nyc.gov/ccrb 방문
- 커뮤니티 내 CCRB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려면 outreach@ccrb.nyc.gov로 이메일
- 경찰-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월간 위원회 회의에 참석